



2012년 9월 05일(수)

□ 미국 경제 동향

- 1) 8월중 자동차 판매 5년래 최대 기록
- 2) 8월중 제조업지수 예상외 하회, 3개월 연속 위축
- 3) 美정부부채 16조 달러 초과, 연말에는 한도 초과 예상

□ 해외 경제 동향

- 1) 사우디, 20년 후 원유 수입국으로 전략 가능성 제기
- 2) 유럽중앙은행의 무제한적 국채매입, 불태화 방식 가능성 농후

□ 산업·시장 동향

- 1) 미국내 자동차 시장, 일본 자동차 약진속 한국차 점유율 소폭 하락
- 2) LCD TV 시장, 3년래 한계 도달 가능성 제기

□ 미국 경제 동향

1) 8월중 자동차 판매 5년래 최대 기록

- 지난 9월4일(현지시간) 미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뉴스는 8월중 미국내 자동차 판매대수가 총 128만5,292대로 전년동기비 20% 급증했다고 발표
 - 이는 전문가 예상치 125만대를 큰 폭 상회하는 결과이며, 2007년 이후 8월 집계 기록으로는 5년 만에 최고 기록
- 월별 계절조정연간판매대수(SAAR)은 금년 들어 지난 1월, 5월을 제외하고 모두 1,400만대를 상회하면서 금년 미국 자동차시장이 1,400만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농후
 - 한때 미국의 연간 자동차판매량은 1,600만~1,700만 대에 이르렀지만, 미국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에는 1043만대까지 감소한바 있음
-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자동차 판매시장은 저금리, 충분한 재고, 인센티브 등이 호재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판매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2) 8월중 제조업지수 예상외 하회, 3개월 연속 위축

- 지난 9월4일(현지시간) 미공급관리자협회(ISM)는 8월중 제조업 지수가 49.6을 기록, 3개월째 위축세를 나타냈다고 발표
 - 이는 전문가 예상치 50.0은 물론, 7월 지수 49.8을 밑도는 결과이며 지난 2009년 7월 이후 최저치
 - 신규주문지수는 48.0에서 47.1로 하락, 고용지수는 52.0에서 51.6으로 위축되며 2009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 반면, 제품가격지수는 54.0을 기록하여 7월의 39.5 대비 큰 폭 개선
-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제조업은 정체된 상태로, 지난달 소비 향상이 제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되긴 했지만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

3) 美정부부채 16조 달러 초과, 연말에는 한도 초과 예상

- 지난 9월4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8월말 기준 정부부채 규모가 16조 157억6,978만8,215.8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
 - 미국 정부는 9월말 마감하는 회계연도에 1조1천억-1조2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 현재 월평균 1천억 달러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12월말쯤 부채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정부지출 감축과 채무한도 상향을 둘러싼 논쟁이 연말께 재점화될 가능성이 농후해짐

□ 해외 경제 동향

1) 사우디, 20년 후 원유 수입국으로 전략 가능성 제기

- 지난 7월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하이디 리먼 씨티그룹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 사우디에서 전기 수요가 정점에 이른 채 석유 소비가 계속 증가하면 오는 2030년 사우디는 석유 순수입국이 될 것이라고 보도
- 리먼 애널리스트는 사우디의 전기 소비 급증세를 문제점으로 지적
 - 사우디는 전기 생산량의 절반이 석유와 정유제품에서 나오는데, 전기 소비가 급증하면서 정점에 달한 전기 생산량이 연평균 8%씩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
 - 그는 사우디의 전기 생산 부담이 늘어나는 데는 인구 1인당 씹씹이가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큰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 한편 연간 예산의 86%를 석유 수출로 충당하는 사우디가 석유 순수입국이 될 경우 국가 재정에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
- 이에 따라 사우디는 석유 소비량 감축을 위해 이미 국내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모두 소비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과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

2) 유럽중앙은행의 무제한적 국채매입, 불태화 방식 가능성 농후

- 지난 9월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유럽중앙은행(ECB) 관리자를 인용,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감안해 시중에 풀었던 유동성을 재 흡수하는 불태화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
 - ECB는 수익률(금리) 상한은 설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광범위한 자산 매입보다는 국채에 초점을 맞추며 최장 3년 만기의 단기 국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한편 드라기 총재는 앞서 지난 9월3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 위기국 국채 금리를 낮추고 유로화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국채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바 있음

□ 산업·시장 동향

1) 미국내 자동차 시장, 일본 자동차 약진속 한국차 점유율 하락

- 지난 9월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8월중 미국 시장내 자동차 판매 결과,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반면, 현대기아차는 공급 부족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점유율이 하락했다고 평가
 - 8월중 도요타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14.7%를 기록, 전년동기 12.1% 대비 2.6%p, 혼다는 10.2%로 2.5%p 상승한 반면 닛산은 8.5%에서 7.7%로 하락
 - 1~8월 누적 점유율은 도요타와 혼다가 각각 전년동기비 1.7%p, 0.7%p가 상승한 14.4%, 9.8%을 기록, 닛산은 점유율 8.0%을 유지
- 전문가들은 일본 업체들이 지난해 대지진 후폭풍 극복을 위해 단일 모델에 집중한 결과라고 분석
 - 도요타는 럭셔리 브랜드인 렉서스 신모델인 ES와 GS 세단을 내세웠고, 혼다는 전통적인 강자인 어코드로 시장을 압도했다고 평가

- 한편 8월중 현대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동기비 0.6%p 하락한 8.6%를 기록
 - 현대차의 미 시장 점유율은 3.9%로 전년동기 4.2%보다 낮아졌고, 1~8월 누적점유율도 지난해 5.2%에서 4.9%로 하락
 - 기아차는 3.9%로 전년동기비 0.1%p, 1~8월 누적 점유율 4.0%로 역시 0.1%p 상승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대차의 점유율이 하락한 것은 생산능력이 수요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
 - 현대차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더 이상 생산시설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며, 아울러 한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파업으로 수출량이 5천~1만대 감소한 것도 현대차의 공급난을 악화시켰다고 지적

2) LCD TV 시장, 3년래 한계 도달 가능성 제기

- 지난 9월5일(현지시간) 미국 시장조사업체 NPD디스플레이서치는 세계 LCD TV 출하 대수는 오는 2015년 약 2억6천만대를 정점으로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중국과 남미 등 신흥국 수요가 일단락되고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성장률이 둔화해 LCD TV 출하는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지적

- 아울러 판매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 오는 2013년을 정점으로 내림세로 돌아서 1년에 30%씩 하락할 것으로 추정